



Ⅱ. 평가결과

1. 총평

- 민선6기 도정방침에 기반하여 현 기관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전북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일정한 성과창출을 이룸. 또한 평가 대상기간내 외부 지적사항 및 도와 체결한 기관장 성과이행 계약에 대한 우수한 달성 성과를 창출하였음.
- 기관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등의 구체화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구성원의 대외활동 및 성과물의 대외공유 측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2. 공통지표

- 기관의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혁신적이며 기관장은 임기 1년차에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을 통해 혁신전략에 중점을 두고 임기 기간동안의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발전전략을 구체화시켜 총량적인 계획이 미흡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도 바람직한 수준이며 부채 감소율도 매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기관은 출연금에 의한 사업수익의 변동이 크므로, 출연금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경영 공시는 목표, 예산, 인력 현황에 대해 게시하여 기관경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실적에 대한 공개도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기관장은 도와 체결한 성과목표 계약사항을 모두 100% 달성하여 달성도는 매우 우수하며,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한 실적이 1건 있음.
- 외부고객들의 만족도는 타 기관 평균 대비 높은편이며 기관의 업무처리 전문성, 친절성, 접근성과 산/학/연 교류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가 타 기관들의 평균 대비 높음.
-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특별감사 이후 기관 차원에서 혁신 노력을 기울인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단행된 혁신과 실천이 연구원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직혁신방안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 사업지표

- 연구원은 특별감사 이후 대대적인 경영혁신 작업을 펼친 바 있으며, 특히 전북도정 싱크탱크로서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를 목표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연구원은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과제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와는 연구과제의 발굴 및 선정과 연구성과 평가과정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연구수행 전 과정에 대한 도와 밀접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성과 평가점수 및 정책반영실적, 그리고 정책반영 만족도 등과 같은 연구과제 성과지표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1. 하지만 연구사업비 예산의 축소에 따라 연구사업비 지출이 감소되고, 특별감사 후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관리강화로 인해 연구원의 학술논문 게재실적은 우수하지만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실적은 과거년도에 비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연구원의 국내·외 산·학·연 교류협력 실적, 연구성과의 대외 확산을 위한 연구성과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실적 등은 대체로 우수하나,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인적교류의 확대 등 교류협력의 질적 성과는 아직 미진한 편이며, 특히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의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원은 연구성과물의 외부확산 및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성과물을 적시에 홈페이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다운로드 실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연구성과물의 확산을 위한 별도의 홍보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음. 보다 체계적인 언론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연구원은 2015년 대대적인 경영혁신 노력으로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른 연구성과물의 성과평가 점수가 향상되는 등의 순기능과 함께,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이 위축되는 일부 역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임.

4. 기관 운영방향

- 2014년 특별감사 이후 연구원은 조직정비를 위한 경영혁신방안(비전 2017 : 혁신과 실천)을 통해 각고의 혁신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을 통한 연구원의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이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의 강화가 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과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연구원은 향후 단기적 도정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구원 본연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함.

- 연구과제의 발굴, 선정, 수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연구원은 오히려 도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언론의 비판을 들을 정도로 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문제의 핵심은 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아니라 도 이외에 연구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민, 시민단체, 대학 및 각종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부족하고 실효적이지 않다는 사실임.

○ 2014년 특별감사 이후 연구원이 마련한 경영혁신방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연구원 본연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사실임.

2. 연구원의 경쟁력은 곧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의 경쟁력임. 따라서 ①우수한 연구인력의 충원, ②우수한 연구인력의 유지와 연구역량 강화, ③연구인력이 생산한 연구성과의 전국적인 명성의 확보가 연구원의 기본이 되는 전략과제임.

3. 연구원의 경영혁신방안을 통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전략과제에 분명하게 연계(alignment)되어야 함.

4. 우수한 연구원이 충원되고, 이들이 연구원에 머무르고 연구원에서 역량을 강화하며, 이들 연구원들의 연구성과가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야함.

5. 개선과제

○ 연구원의 지속가능성과 연구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연구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발굴, 선정, 수행(공동연구 혹은 연구참여), 그리고 평가과정에 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도 의회, 대학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과 도민, 그리고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연구성과물 중 외부 고객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브리핑 및 정책브리핑의 발간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원의 연구인력 채용에 문을 두드리는 인재들 중에서 그나마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최선의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발굴하는 방식으로 채용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연구인력을 연구원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엄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연구성과 평가(질적 평가, 수요자 평가)를 비대면

블라인드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의 대외적 영향력과 명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연구활동 성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의 대외적 명성과 영향력이 연구원의 핵심경쟁력인 만큼 연구인력의 대외학술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함.
-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국책연구기관이나 여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공동연구수행, 인적 교류 등)을 확대하여,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언론보도실적 DB를 구축하는 등 연구원의 언론보도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